



금년에 나는 환갑이다. 요즘은 환갑이라고 해도 환갑잔치를 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세상이라 나도 물론 환갑잔치를 하지 않았다. 대신 주변 사람들을 보면 외국으로 환갑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 그거라면 나도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공증인 사무실을 비울 수가 없어서 외국여행도 할 수가 없다.

그래도 나는 환갑인데 무언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머리에서 맴돈다.

내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중국, 일본 등에서는 환갑을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환갑이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시점이라고는 하지만 그것은 이미 60년은 살아보고 나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라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우리 공증인 사무실에 가끔 오는 분으로 김 회장이라는 분이 있다. 나름 이곳 당진에 서는 활동이 많으신 분 같다.

그는 매우 유능하고 일을 잘하게 생겼다. 다만 그는 1원 한 장 다른 사람에게 공돈을 줄 것 같지는 않은 인상이다.

그가 우리 사무실에 처음으로 왔을 때 첫마디가 우리 사무실이 언제 개업했는지를 묻는 것이었다. 그는 자기 같은 사람도 이제야 당진에 공증인 사무실이 생긴 것을 알았는데 다른 일반 사람들은 당진에 공증인 사무실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많을 거라면서 우리 공증사무실을 더 많이 광고를 하라고 한다.

그는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보통 사람들이 법무사에게 맡겨서 하는 총회 의사록 공증 등도 본인이 직접 할 뿐 아니라, 공증하는 서류에 적힌 금액에 따라서 산정하는 공증 수수료도 지나치게 적게 내려고 해서 나를 불쾌하게 만들기도 했다.

그는 다시 공증하러 왔을 때 우리 사무소가 114에 문의해도 모르는 것 같으면서 장황하게 공증사무소를 광고하라고 설교를 해서 급기야는 나의 부화를 끌어놓고 말았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하루에 50그릇만 파는 식당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었다.



이곳 당진에는 하루에 50그릇만 판다는 식당이 있다. 집은 매우 허름하고 테이블은 5~6개 정도다.

어머니와 딸이 운영하고 종업원은 없다. 손님은 항상 끓이지 않는다. 바로 가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경우는 드물고 대개 10분에서 20분 정도는 서서 기다려야만 한다.

메뉴는 비지찌개와 돼지갈비뺏국 2개뿐이고 가격은 각각 6,000원씩이다.

이곳 사람이 아니면 찾기가 힘든 식당이다. 간판도 눈에 잘 띄지 않는다. 유심히 살펴보아야 국밥집이라는 간판이 보인다.

나는 이곳에서 오래 살고 계시는 배법무사님 소개로 처음으로 그곳에 갔었다.

이 식당에 대하여 당진 지역신문인 “당진시대”에 기사가 났던 적이 있다. 하루에 50그릇만 파는 이유에 대하여 주인은 그 정도만 팔아도 돌아가는데 충분하고 더 이상 힘들게 일하며 살고 싶지 않다고 말했던 것 같다.

TV에서 동물의 왕국을 보면 곤충은 식물에서 먹을 것을 취하고, 또 한편 곤충은 새들의 먹잇감이 되기도 한다. 어린 새 새끼는 뱀에게 잡아먹히고, 뱀은 멧돼지 등의 먹이감이 되기도 한다. 식물들도 햇빛을 얻기 위해서 경쟁이 치열하다.

모든 생물은 무한히 커지려는 욕심이 본능적으로 있는 것 같다.

그런데 하루에 50그릇만 팔고 만다고? 이를 두고 좋은 판매전략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어쨌든 나는 김 회장님에게 더 팔 수 있는데도 하루에 50그릇만 파는 이 식당을 설명하고, 내가 서울에서 오랫동안 변호사를 했던 사람인데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했으면 내 생활 기반이 있는 서울에서 변호사 생활을 계속했지 이곳에 내려와 공증사무실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해 주었다.

김 회장은 그 설명에 크게 납득하는 표정은 아니었으나 그래도 자신의 말이 더 이상은 필요 없다는 것은 아는 표정이었다.

그날 오후에는 인터넷 Daum 직원에게서 우리 사무실을 광고하지 않겠냐는 취지의 전화가 왔다. 나는 됐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으려고 했더니 상대방은 굳이 2분만 더 자기 말을 들어 달라고 한다.

그 Daum 직원은 당진에는 공증인 사무실이 우리 사무실밖에 없으니 인터넷 Daum에서 당진에 있는 공증사무실을 찾으면 우리 사무실이 우선적으로 나타나게 해주겠다고 한다. 그 말에 대하여 내가 “나는 더 이상 바빠지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을 하니 상대방은 뜻밖에 대답이라는 듯 더 이상 말이 없었다.



금년에 나는 환갑이다. 환갑잔치는 하지 않았고 환갑이라고 외국여행도 가지 못했다. 그래도 환갑인데 무언가를 해야 하여야 하지 않을까?

환갑은 인생을 새로 시작하는 시점이라고 한다. 인생을 새로 시작하는 시점에서 적어도 앞으로 살아가는데 기준이 되는 원칙은 하나 있어야겠다.

나도 하루 세끼 밥을 먹어야 하는 존재이고 부양하여야 할 처자식도 있다. 그러니 나는 돈을 벌어야 한다. 다만 그 돈을 번다는 것이 나 자신이 더 커지기 위해서, 그리고 내 자식에게 더 많은 재산을 남겨 놓기 위해서 하루 24시간 돈 버는 일에만 빠져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하루 50그릇만 파는 식당에서 하듯이 기본적으로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돈만 벌고 나머지 시간에는 인생이 즐거운 이유를 알 수 있도록 인생을 즐기고자 한다. 

